

SK 정규시즌 1위 확정...4년 연속 KS 진출



SK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의 기쁨. SK 선수단이 22일 잠실에서 페넌트레이스 1위를 확정지은 뒤 한국시리즈 선전을 다짐하며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장철 | 연합뉴스

“박경완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김성근이 말하는 SK 1위의 3가지 비결

- 1 선발도 마무리 전한 팀 플랜의 승리
- 2 3년연속 KS 경험 마지막에 힘 발휘
- 3 초반 어린선수 막판엔 고참이 해결

역사는 의외로 조촐하게 이뤄졌다. 추석 연휴의 한복판, 적지인 잠실구장, 찌푸린 날씨, 더블헤더 1경기, ... SK가 22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경기 승리로 하나 남았던 정규시즌 1위 매직넘버를 없앴다. 1986~1989년 해태 이후 역대 2번째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4월 18일 1위로 올라선 이후 한 번도 뺏기지 않았다. 4월 14일~5월 4일 사이 16연승을 거뒀고, 7월 4일에는 2위와 격차를 10경기까지 벌렸다. 우승 확정까지 팀 방어율(3.72) 1위, 최소실점(529점), 최소실책(85개·한화의 80개는 논외로 치고)에서 보듯 가장 무결점에 가까운 기록을 냈다.

“이겨도 반응이 없더라”고 김성근 감독이 말할 정도로 이제 '제국 SK'에서 우승은 일상

김성근 감독 취임 후 SK 성적(2007~2010)

| 연도   | 페넌트레이스 성적                    | 포스트시즌 성적               |
|------|------------------------------|------------------------|
| 2007 | 1위(126경기 73승48패5무, 승률 0.603) | 한국시리즈 우승(VS두산, 4승2패)   |
| 2008 | 1위(126경기 83승43패, 승률 0.659)   | 한국시리즈 우승(VS두산, 4승1패)   |
| 2009 | 2위(133경기 80승47패6무, 승률 0.602) | 플레이오프 통과(VS두산, 3승2패)   |
| 2010 | 1위(130경기 83승45패2무, 승률 0.638) | 한국시리즈 준우승(VSKIA, 3승4패) |

※2010년은 23일까지 성적



처럼 됐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서슴없이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라고 했다. 23일 문학 LG전에 앞서 김 감독이 회고한 우승비결을 육성에 입각해 살펴봤다.

●비결 1=팀 플랜의 승리

재활에 성공했다. 1년 내내 부상자가 나왔고, 작년 가을부터 재활자가 많았다. (김 감독은 개막부터 출발하지 못했고, 박경완의 아킬레스는 시한폭탄이었다. 송은범, 전병두, 글로버, 정대현, 이호준, 정상호도 정상이 아니었다) 불안하게 시즌에 들어갔다. (김 감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삼성은 장원삼, 두산은 이현승을 들여와 전력에 상승했다. SK가 떨어졌고, 누구도 그렇게 봤다. 나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보직과 운영의 묘가 좋았다. 선발을 길게 가져갔고, 이호호를 뒤에 썼다. (SK는 본래 감독의 경기개입을 극대화하는 볼펜야구 색채가 진했지만 전반기에는 선발의 힘으로 밀었다) 승부가 되겠다 싶으면

●비결 2=3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의 프라이드

개인보다는 팀으로서 강해졌다. 8~9월이 가장 큰 고비였다. 선발, 중간, 마무리 고비에 삼성은 쫓아오고, 벗어나려 할수록 의식했다. 축승회에서 “감독 잘못 만나 고생한다.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못했다”고 말했다. 롯데와 마지막 2연전 다 졌을 땐 ‘감독 자격이 있나’ 싶었다. LG전 비겨서 삼성에 2경기로 쫓겼을 때는 선수들 모아서 ‘수고했다’고 해줬다. 분위기가, 뭔가 할 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의 경험을 선수들이 축

적이고 있었던 것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비결 3=경기를 할 줄 아는 선수들

짜라 해도 (수훈감은) 박경완이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우람, 이승호는 초반 무리할 정도로 잘해줬다. 우람이가 MVP다. 김강민은 하위타선에서 잘해줬다. 막판 어려울 때는 베테랑들이 해줬다. SK는 항상 시즌 초반엔 어린 선수, 막판엔 베테랑이 해줬다. 박경완이 힘들어해서 이호호를 4번으로 밀었는데 큰 홈런(19일 삼성전 2점홈런)을 쳐줬다. 그 경기 이기고서야 ‘됐다’ 싶었다.

문학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전용배의 열린스포츠

양준혁의 눈물이 위대한 이유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 양준혁(사진)이 19일 SK전을 끝으로 현역생활을 마무리했다. 프로야구 팬이라면 양준혁의 은퇴가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한 추억이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에,

이만수, 이승엽과 더불어 그는 삼성의 아이콘이었다. 대구구장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그에게는 ‘엄마의 품’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32년 전 처음 대구구장에서 초등학교 선수로 데뷔했고, 마지막을 대구구장에서 끝냈다. 18년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통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1만여 팬의 환호와 아쉬움 속에 ‘대장정’을 마무리한 양준혁, 필자가 보기에 그는 ‘뽕뽕’했기에, 오늘날 한국프로야구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됐다.

양준혁이 은퇴를 선언한지 이미 두 달,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그가 이룩한 기록이나 업적을 조명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가 프로에 입문하기 전부터 봐왔기에 그의 ‘18년 대장정’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뿐이다. 1988년 대학 신입생이던 그를 처음 봤을 때 그는 그냥 ‘원석’에 가까웠다. 대구지역에서 야구를 좀 하기는 했지만 청소년대표 출신도 아니고, 하드웨어가 괜찮아 단지 장래성 있는 선수에 가까웠다. 대학시절에도 괜찮은 기록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아마추어 국가대표에도 자주 선발되는 선수는 아니었다. 당시 건국대의 추성건과 1루에서 쌍벽을 이루는 정도였다.

최동원, 선동열, 장효조, 이종범 등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들에 비하면 ‘뽕뽕한 재능’의 소유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노력형의 범주에 넣기엔 1% 부족하고, 근성이 강하거나 통솔력이 뛰어난 리더십이 대단하다고 추앙받는 선수도 아니었다. 그런 그가 한국프로야구 대부분의 타자 통산기록을 모두 갱신했다. 물론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의 통산기록들을 누구도 꺾어보기는 어렵다.

야구도 다른 스포츠처럼 천재적 재능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종목처럼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왜? 야구는 게임수가 많다는 것이 다른 종목과 기본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이처럼도 오릭스 시절 몇 년의 2군 생활을 거쳤다. 야구는 축구나 농구처럼 10대와 20대 초반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오래 선수생활을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필수적이고 ‘자기절학’을 완성하지 못하면 통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종목이다. 양준혁이 위대한 건 매일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고, 30대 중반 이후엔 ‘세월’과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이다.

양준혁이 다른 선수와 대별되는 점은 ‘야구를 참 좋아한다’는 것이다. 즉 야구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남다른 선수였다. 어쩌면 그의 야구인생은 열정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던지도 모른다. 은퇴식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양준혁, 수많은 팬들은 그가 이룩한 위대한 기록보다도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그의 ‘인내’를 더 기억할 것이다. ‘뽕뽕’했기에 위대했던 양준혁, 그런 양준혁을 보며 팬들은 또 다른 자기를 느낀다. ‘위대한 영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함께 했던 ‘선산의 굵은 소나무’의 퇴장기에 더 애잔하다. 세월 앞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끝까지 싸워준 양준혁, 마지막으로 1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그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양준혁, 아유!



동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요기 배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경구를 좋아한다. 스포츠에 대한 로망을 간직하고 있다  
한살과 로망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로망과 스포츠의 “진정성”을 이야기 하고 싶다

편집 | 김남연 기자 kne81@donga.com



헝가리는 기본 SK 선수들이 22일 페넌트레이스 1위를 확정지은 뒤 김 감독을 헝가리처럼 기뻐하고 있다.

SK “1위란...바로 이 맛 아닙니까!” 깃발도 선물 김광현이 22일 잠실 두산과의 더블헤더에서 페넌트레이스 1위를 확정지은 뒤 구단 깃발을 관중에게 선물하고 있다.

맥주사위로 마무리 SK 김성근 감독이 22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페넌트레이스 1위 축승회에서 물안경을 쓴 채 선수들로부터 맥주 세례를 받고는 즐거워하고 있다.

KS 운명은 투수...마운드 조합 최우선

■ SK 포스트시즌 전략과 전망

SK 김성근 감독은 ‘고전주의자’다. 133경기 장기전인 페넌트레이스 1위가 7전4선승제 초단기전 한국시리즈(KS) 우승보다 값져야 된다고 믿는다. 한편으로 김 감독은 ‘현실주의자’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쟁취해야 정규시

즌 1위로 인정받는 풍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SK의 정규시즌 1위를 KS를 이기기 위한 절대요건의 충족이라고 바라본다. 과거 3년 SK의 KS 명암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SK는 중간(불편) 갖고 야구하는 팀이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힘을 뺏 탓에) KS

도 중간에서 무너졌다. 1위의 의미는 중간전 소모 없이 바로 KS에 돌입한다는 데 있다.”

김 감독은 ‘KS의 운명은 투수가 쥐는’다고 딱 잘라 말한다. 남은 기간, 투수진 조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글로버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린 이호호(37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광현, 카도쿠라를 받칠 제3선발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보는 셈이다. 송은범 마무리 카드는 유효하고, 전병두는 조커 쓰임새다. 김 감독은 23일 이재영

의 불펜피칭을 직접 관찰했다. 셋업맨, 특히 우안이 아쉽기 때문이다.

KS 파트너로 어느 팀을 선호하는지는 ‘당연히’ 함구했다. 단 ‘삼성이 다 낫다’라는 말은 흘렸다. 준플레이오프에 대해서는 ‘승부를 할 줄 아는 건 두산, 롯데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대호 대 김현수 싸움이다. 그리고 기동력에 달렸다’고 예상했다.

문학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준플레이오프 입장권 27일부터 판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개막하는 준플레이오프 입장권을 27일부터 판매한다. KBO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http://www.gmarket.co.kr)과 전화(1566-5702)를 통해 준플레이오프 1~2차전 입장권을 27일 오후 2시부터, 3~5차전은 30일 오후 2시부터 판다. 현장 판매 없이 전량 예매한다. 인터넷 예매를 통해 1인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고 예매표는 야구장 매표창구에서 교환할 수 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이상 5전3선승제) 입장요금은 일반석 성인 기준 최하 1만 5000원에서 최고 4만원이다.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입장권은 최대 5만원이다. 또 구장마다 좌석의 등급이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역 세분화했다.

포스트시즌 경기는 평일 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콤팩트 뉴스

**두산, 한시즌 최대 홈관중 1년만에 경신**  
두산이 한 시즌 최대 홈관중을 기록했다. 23일 잠실 넥센전에 1만105명이 입장해 홈 65경기(잔여 1게임)에서 105만9245명으로 종전 기록(105만3966명)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두산 오늘 '팬성원 감사 와인파티' 개최**  
두산이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인 24일 잠실 넥센전 종료 후 1루 출입구 앞 광장에서 '팬성원 감사 와인 파티'를 연다. 선착순 5000명에게 와인을 무료 제공하며 김경문 감독과 선

수단 전원이 팬들에게 감사의 전한다.

**롯데, 사직구장 야외광장서 포스트시즌 출정식**  
롯데가 24일 사직 삼성전 종료 후 포스트시즌 출정식을 연다. 사직구장 앞 야외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출정식은 팬 대표의 선전 기원 낭독 및 주장 조성환의 답사, 로이스터 감독의 출사표 등으로 진행된다.

**LG 김영직 수석코치기 모친상**  
LG 김영직 수석코치가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은 25일 오후 1시. (02)857-0444.